

입원환자의 정신과자문 현황 및 반영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연 규 월

=Abstract=

Pattern and Outcomes of Psychiatric Consultation in a General Hospital

Kyu-Wol Yun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The author investigated 85 cases of inpatients who were referred for psychiatric consultation at Ewha Womans University Hospital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1988 and analyzed the demographic data and the current of consult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Overall psychiatric consultation rate was 0.70% of total inpatient populations, and the number of consultation from th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was the highest of all the clinical departments(52.94%).

The department of neurosurgery ranked highest in the consultation rate(2.14%), but the medical part(0.85%) significantly ranked more than the surgical part(0.53%) in the consultation rate($P < 0.001$).

2) The age group of twenties to forties showed the highest consultation rate and that of over sixties was 18.8%, but that of below tenth was only 1.2%.

3) Psychiatric consultation from intensive care unit was only 2.4% and the rate of admitted patients through emergency room was 40.0%.

The consultation rate was the highest in January and the rate of the hospital days within one week was the highest in the hospital days of consultation by department.

4) As to the reason for psychiatric consultation, physical symptoms with no laboratory abnormalities were the highest(33.6%) and psychiatric symptoms(55.1%) were more than physical symptoms(44.9%) at the time of consultation.

5) As to the diagnoses of consulted patients given by consultants, the first is organic mental disorders(27.1%) and the second is somatoform disorders(22.3%).

6) Among various concordance rates with consultants' recommendations, that of psychotropic drug recommendation was the highest(77.9%) and that of OPD follow up recommendation was the lowest(27.9%).

*본 연구는 1988년도 이화의대 동창회 학술연구비 보조에 의함.

As to the concordance rate of psychotropic drug recommendation, the surgical part(85.7%) ranked more than the medical part(71.4%) ($P<0.1$).

The abov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others. In addition to this comparison, the author also reviewed the importance and the role of the Liaison Psychiatry in the general hospital.

서 론

최근 종합병원안에 있는 정신과의 기능과 역할 중, 일반병동에 입원되어 있는 임상 각 과 환자의 정신과 자문조정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자문조정 정신의학이란 심리적 요인에 의한 신체화(somatize)와 신체질환의 진단, 치료, 연구와 정신과의사가 아닌 모든 보건요원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정신의학의 한 분야이다¹⁾.

이미 서구에서는 1930년대 부터 그 개념이 도입되어 내과와 정신과 환자에 대한 정신신체적 접근이 시도되었고 그 후 정신생물학과 정신신체학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되어 최근에는 정신의학의 한 분과로 자리잡고 있다²⁾.

미국의 경우엔 1950년대 부터 정신과 자문이 활기를 띄우기 시작해 최근 10여년간 많은 문헌이 발표되었는데 타과 입원환자중 정신과로 자문의된 비율이 2.8~22%³⁾⁴⁾⁵⁾⁶⁾이며 그 중 내과 입원환자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또 내과 환자의 30~60%가 최소 한가지 이상의 정신과 문제를 지니고 있다³⁾고 하였다. 이에 비해 영국은 미국보다 의뢰율이 낮아 전체 자문율이 1.4%⁷⁾이며 역시 내과환자의 20~25%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보고가 있다⁸⁾.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민⁹⁾이 외래환자에 대한 자문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였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1977년이후 부터이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자문조정 정신의학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지금까지 보고된 종합병원 환자에 대한 정신과 자문율은 외래가 0.25~0.33%⁹⁾¹⁰⁾, 입원이 1.40~2.82%¹⁰⁾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영·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비율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조¹¹⁾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자문정신의학은 아직도 입원, 통원환자

진료의 부속물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학 전체에서는 자문조정 정신의학이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전문가 양성, 자문시간의 충분한 배정, 자문료의 설정,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강과 민¹⁰⁾도 점차 자문율이 증가되고 있고 과별 분포, 환자들의 증상, 진단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 자문조정 정신의학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환자가 정신과 문제를 가진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과 상당수의 타과 의사들이 정신과 자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들고 있다.

Brody¹²⁾는 비정신과 의사들의 자연스런 참여에는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효과적인 자문을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 스스로가 기본적인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 문화의 영향, 법률, 윤리학, 사회학, 인류학, 인간의 권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생물학에 대한 지식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병원에서는 1978년 우¹³⁾가 입원환자의 정신과 의뢰에 대해 연구 보고한 바 있으나 그 후 추사가 없었기 때문에 10년후인 가장 최근의 정신과 자문에 대한 변화를 연구하여 국내의 문헌들과 비교 검토해 보고, 이를 향후 본교실의 자문조정 정신의학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198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동안 이화여대 부속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12,352명중 신경정신과 입원환자 207명을 제외한 12,145명 가운데 정신과에 자문의뢰된 환자 85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조사방법

정신과에 의뢰된 환자는 일차적으로 인턴이 자세한 정신의학적 병력을 조사하고 그 후 일반 진료는 수석 전공의가 담당하였고 특진의 경우 교수진이 담당하였으며 수석 전공의가 담당했을 경우엔 교수진까지 보고한 후 토의 검토되었다.

조사방법으로는 자문의뢰서 및 자문기록과 병록 일지를 참고하였고 이중 기록이 조금이라도 미비한 경우는 제외시켰다. 조사내용은 일반 인구학적 자료(전체 자문을 및 과별분포, 성별과 연령분포, 자문장소와 입원경로, 월별분포)와 정신과 자문상황(자문시까지 입원일수, 자문이유, 자문당시의 증상, 자문의의 정신과적 진단, 자문의의 제안과 반영도)으로 나누어 분류 검토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통계처리를 하였다.

조 사 결 과

1. 일반 인구학적 자료

1) 전체 자문을 및 과별분포(Table 1)
연구기간동안 전체 입원환자 12,352명중 신경정

신과 입원환자 207명을 제외한 12,145명 가운데 85명이 신경정신과에 자문 의뢰되어 전체 자문율은 0.70%이었다. 총 자문 85례중 내과로부터의 의뢰가 45례(52.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형외과 16례(18.82%), 신경외과 11례(12.94%)를 나타냈다. 각과 입원환자중 의뢰된 환자수는 신경외과가 2.14%로 가장 높았고 내과 1.86%, 정형외과 1.82%를 나타냈다. 계열별로는 내과계의 자문(46례, 54.12%)이 외과계(39례, 45.88%)보다 많았고. 자문율도 내과계(0.85%)가 외과계(0.5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2) 성별과 연령분포(Table 2)

총 자문 85례중 남자는 41명(48.2%), 여자는 44명(51.8%)으로 여자가 조금 더 많았다. 남녀 모두 합쳐 30대가 18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40대가 각각 17명(20.0%), 60대 이상이 16명(18.8%), 50대가 12명(14.1%), 10대가 4명(4.7%)이고 10대이하는 1명(1.2%)뿐이었다.

3) 자문장소와 입원경로(Table 3)

자문장소는 일반병실에서 의뢰된 경우가 83례(97.6%)이고 중환자실에서의 의뢰는 2명(2.4%)뿐

Table 1. Source of consultation

	Department	Number of inpatients	Number of referrals (%)	Rate of consultation (%)
Medical part	Internal Medicine(IM)	2415	45(52.94)	1.86
	Pediatrics(Ped)	2408	1(1.18)	0.04
	Subtotal	4823	46(54.12)	0.85*
Surgical part	General Surgery(GS)	1358	3(3.53)	0.22
	Orthopedic Surgery(OS)	878	16(18.82)	1.82
	Neurosurgery(NS)	513	11(12.94)	2.14
	Obsterics and Gynecology(OB-GY)	2830	3(3.53)	0.11
	Plastic Surgery(PS)	340	2(2.35)	0.59
	Chest Surgery(CS)	194	1(1.18)	0.52
	Urology(Uro)	513	2(2.35)	0.39
	Ophthalmology(Ophth)	147	1(1.18)	0.68
	Others	549	0(0.00)	0.00
	Subtotal	7322	39(45.88)	0.53
	Total	12145	85(100.00)	0.70

* $P < 0.001$

Table 2. Age and sex distribution

Sex / Age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	Total(%)
Male	1	3	6	8	9	6	8	41(48.2)
Female		1	11	10	8	6	8	44(51.8)
Total(%)	1(1.2)	4(4.7)	17(20.0)	18(21.2)	17(20.0)	12(14.1)	16(18.8)	85(100.0)

Table 3. Place of consultation and route of admission of the referrals

Consultation / Dept.	IM	Ped	GS	OS	NS	OB-GY	PS	CS	Uro	Ophth	Total(%)	
Place	Ward	44	1	3	16	11	3	2	-	2	1	83(97.6)
	ICU	1	-	-	-	-	-	-	1	-	-	2(2.4)
Total	45	1	3	16	11	3	2	1	2	1	85(100.0)	
Route admission	OPD	33	1	1	6	4	2	1	-	2	1	51(60.0)
	ER	12	-	2	10	7	1	1	1	-	-	34(40.0)
Total	45	1	3	16	11	3	2	1	2	1	85(100.0)	

이었다. 입원경로는 외래를 통해 입원한 경우가 51례(60.0%)이고 응급실 경유한 입원은 34례(40.0%)이었다.

4) 월별분포(Table 4)

자문의뢰는 일년중 1월에 가장 많았고(17.7%) 3월이 가장 적었으며(2.4%) 전체 환자에 대한 월별 자문율도 1월이 1.40%로 가장 높았고 3월이 0.18%로 가장 낮았다.

2. 정신과 자문상황

1) 자문시까지 입원일수(Table 5)

자문시까지의 평균 입원일수는 입원한지 일주일 이내에 자문을 의뢰해 온 과(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안과)가 대부분이고 성형외과가 1달이내에, 정형외과가 1달이후, 신경외과는 3달이후에 자문을 의뢰해왔다.

Table 4. Monthly distribution of the referrals

Month	Number of Inpatients	Number of Referrals(%)	Rate of Consultation(%)
January	1072	15(17.7)	1.40
February	986	5(5.9)	0.51
March	1122	2(2.4)	0.18
April	976	10(11.8)	1.02
May	1037	12(14.1)	1.16
June	1009	4(4.7)	0.40
July	634	4(4.7)	0.63
August	1129	7(8.2)	0.62
September	975	8(9.4)	0.82
October	1088	7(8.2)	0.64
November	1060	8(9.4)	0.75
December	1057	3(3.5)	0.28
Total	12145	85(100.0)	0.70

Total referred from Jan. 1, 1988 to Dec. 31, 1988

2) 자문이유(Table 6)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41례(33.6%)로 가장 많았고 특히 내과 자문례가 26례로 반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이 진단적 평가와 치료를 위해 의뢰한 경우가 22례(18.0%)이었고 섬망이나 난폭한 행동등을 포함한 행동장애가 20례(16.4%),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가 16례(13.1%), 자살 시도가 10례(8.2%), 추적치료 5례(4.1%), 그리고 전과 및 문제해결을 위한 요청이 각각 4례(3.3%)로 나타났다.

Table 5. Hospital days of consultation by department

Department	Hospital days
Internal Medicine	4.1
Pediatrics	3
General Surgery	5
Orthopedic Surgery	38.9
Neurosurgery	112.4
Obstetrics and Gynecology	3.7
Plastic surgery	18.5
Chest surgery	7
Urology	5
Ophthalmology	2

3) 자문당시의 증상(Table 7)

정신과적증상이(158개, 55.1%) 신체증상(129개, 44.9%)보다 더 많았다. 정신과적 증상에는 정서적

Table 7. Symptoms on consultation (N=85)

	Symptoms	No. of symptoms(%)
Somatic symptoms	Gastrointestinal	22(7.7)
	Head and CNS	41(14.3)
	Muscular	10(3.5)
	Sensory	11(3.8)
	Cardiovascular	17(5.9)
	Respiratory	10(3.5)
	Genitourinary	7(2.4)
	Autonomic	11(3.8)
	Subtotal	129(44.9)
Psychiatric symptoms	Emotional problems	55(19.2)
	Behavioral problems	29(10.1)
	Thought disturbance	31(10.8)
	Insomnia	21(7.3)
	Suicidal behavior	14(4.9)
	*Others	8(2.8)
	Subtotal	158(55.1)
	Total	287(100.0)

*Others(Marital problems, Adjustment problems, Personality change, Growth retardation etc.)

Table 6. Reason for psychiatric consultation (N=85)

Reason / Dept.	IM	Ped	GS	OS	NS	OB~GY	PS	CS	Uro	Oph	Total(%)
Somatic symptoms with no laboratory abnormalities	26	1	2	7	2	1	1	-	1	-	41(33.6)
Suicidal attempt	8	-	-	1	-	-	-	1	-	-	10(8.2)
Disturbed behavior	7	-	1	5	4	1	1	-	1	-	20(16.4)
Previous psychiatric history	13	-	-	2	-	1	-	-	-	-	16(13.1)
Diagnostic evaluation and treatment	9	1	1	1	7	-	2	-	-	1	22(18.0)
Transfer	1	-	-	1	2	-	-	-	-	-	4(3.3)
*Follow-up treatment	3	-	-	2	-	-	-	-	-	-	5(4.1)
*Management problems	-	-	-	3	1	-	-	-	-	-	4(3.3)
Total	67	2	4	22	16	3	4	1	2	1	122(100.0)

*Follow-up treatment of previously consulted patients

**Transfer of patients to psychiatric ward and commitment, side effects of antipsychotic drugs etc.

문제가 55개(1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고 장애가 31개(10.8%), 행동문제가 29개(10.1%), 불면증이 21개(7.3%), 자살기도가 14개(4.9%), 그외 결혼문제, 적응장애, 성격변화, 성장장애등이 8개(2.8%)로 나타났다.

4) 자문의의 정신과적 진단(Table 8)

자문의가 내진 정신과적 진단가운데는 기질성 정신장애가 23례(2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신체형장애 19례(22.3%), 정동장애 13례(15.3%),

불안장애 11례(12.9%), 자살시도 6례(7.1%), 정신분열성장애, 성격장애, 기타(알콜중독, 결혼문제, 적응장애)가 각각 4례(4.7%)의 순이었고 진단분류가 1례(1.2%)이었다.

5) 자문의의 제안에 대한 반영도

① 자문의에 의해 제안된 검사(Table 9-a)

자문의가 제안한 검사는 MMPI를 포함한 심리 검사, 뇌파검사로서 총 85례중 83례(97.6%)에 제안되어 그 중 40례(48.2%)에서 실시되었고 내과

Table 8. Psychiatric diagnoses by consultant (N=85)

Diagnosis / Dept.	IM	Ped	GS	OS	NS	OB-GY	PS	CS	Uro	Oph	Total (%)
Affective disorders	7	-	-	3	1	2	-	-	-	-	13(15.3)
Organic mental disorders	9	-	1	2	9	-	-	-	1	1	23(27.1)
Somatoform disorders	11	-	2	3	1	1	1	-	-	-	19(22.3)
Suicide attempts	6	-	-	-	-	-	-	-	-	-	6(7.1)
Anxiety disorders	6	1	-	4	-	-	-	-	-	-	11(12.9)
Schizophrenic disorders	4	-	-	-	-	-	-	-	-	-	4(4.7)
Personality disorders	-	-	-	3	-	-	1	-	-	-	4(4.7)
Diagnosis deferred	-	-	-	1	-	-	-	-	-	-	1(1.2)
Others	2	-	-	-	-	-	-	1	1	-	4(4.7)
Total	45	1	3	16	11	3	2	1	2	1	85(100.0)

Others : IM : Alcoholism, Marital problem

CS : Adjustment problem

Uro : Marital problem

Table 9-a. Response to consultants' recommendation

Depart. (No.)	Rate of acceptance for Psychiatric exam.(%)	Rate of acceptance for psychotropic drugs(%)	Rate of acceptance for psychiatric diagnoses(%)
Medical Part			
IM(45)	20/43(46.5)	30/41(73.2)	32/45(71.1)
Ped(1)	0/ 1(0)	0/ 1(0)	0/ 1(0)
Subtotal(46)	20/44(45.5)	30/42(71.4)	32/46(69.6)
Surgical part			
GS(3)	1/ 3(33.3)	2/ 3(66.7)	1/ 3(33.3)
OS(16)	7/16(43.8)	14/16(87.5)	12/15(80.0)
NS(11)	8/11(72.7)	5/ 7(71.4)	7/11(63.6)
OB-GY(3)	1/ 3(33.3)	3/ 3(100.0)	3/ 3(100.0)
PS(2)	1/ 2(50.0)	2/ 2(100.0)	1/ 2(50.0)
CS(1)	1/ 1(100.0)	1/ 1(100.0)	1/ 1(100.0)
Uro(2)	1/ 2(50.0)	2/ 2(100.0)	2/ 2(100.0)
Oph(1)	0/ 1(0)	1/ 1(100.0)	0/ 1(0)
Subtotal(39)	20/39(51.3)	30/35(85.7)*	27/38(71.1)
Total referrals(85)	40/83(48.2)	60/77(77.9)	59/84(70.2)

Rate of acceptance : No. of acceptance/No. of recommend *P<0.1

Table 9-b. Response to consultants' recommendation

Depart. (No.)		Rate of acceptance for Psychiatric transfer(%)	Rate of acceptance for OPD follow-up(%)
Medical part	IM(45)	6/13(46.2)	9/33(27.3)
	Ped(1)	-	0/1(0)
	Subtotal(46)	6/13(46.2)	9/34(26.5)
Surgical part	GS(3)	0/1(0)	0/2(0)
	OS(16)	3/4(75.0)	6/15(40.0)
	NS(11)	2/3(66.7)	1/6(16.7)
	OB-GY(3)	2/3(66.7)	-
	PS(2)	-	1/2(50.0)
	CS(1)	-	0/1(0)
	Uro(2)	0/1(0)	0/1(0)
	Oph(1)	0/1(0)	-
	Subtotal(39)	7/13(53.8)	8/27(29.6)
Total referrals(85)		13/26(50.0)	17/61(27.9)

Rate of acceptance : No. of acceptance/No. of recommend

계(45.5%)보다 외과계(51.3%)에서 비교적 높은 반영율을 나타냈다.

② 투약제안(Table 9-a)

자문의뢰된 환자 85례중 77례(90.6%)에게 항정신성 약물의 투약을 제안하였는데 이 중 60명(77.9%)에게 투약이 실시되었고 외과계(85.7%)가 내과계(71.4%)보다 투약제안에 대한 높은 반영율을 보였다($p<0.1$).

③ 정신과 진단(Table 9-a)

자문의뢰된 환자 총 85례 가운데 진단이 보류된 1례를 제외한 84례(98.9%)중 59례(70.2%)에서 정신과진단이 반영되었고 외과계(71.1%)가 내과계(69.6%)보다 반영율이 높았다.

④ 정신과로의 전과(Table 9-b)

총 85례중 26명(30.6%)에게 정신과로의 전과를 권유하였는데 이 중 13례(50.0%)가 전과되었고 내과계(46.2%)보다 외과계(53.8%)에서의 전과율이 더 높았다.

⑤ 외래 추적치료에 대한 제안(Table 9-b)

총 85례중 61명(71.8%)에게 외래치료를 권유하였고 이 중 17명(27.9%)만이 외래치료를 한 바 있으며 내과계(26.5%), 외과계(29.6%) 모두 외래 추적치료에 대한 반영율이 낮은 편이었다.

고 찰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자문을율 보면 유와 정¹⁴⁾의 보고가 0.55%로 가장 낮고 그외는 1.40~2.82%¹⁰⁾까지의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본병원의 입원환자중 일년동안 정신과로 자문의뢰된 환자 총수는 85례로 전체 입원환자(정신과 입원환자 207명제외)의 0.70%로 유와 정¹⁴⁾(0.55%)의 보고보다는 높으나, 우¹³⁾(0.75%)의 보고보다 다소 낮고 국내 타병원의 연구결과¹⁰⁾¹¹⁾¹⁵⁾¹⁶⁾¹⁷⁾²⁸⁾²⁹⁾³⁰⁾와 비교해 볼때는 아주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참고로 국외의 연구결과를 보면 중국이 0.74%¹⁸⁾로 가장 낮고 영국이 0.7~1.3%⁷⁾, 캐나다는 1.26%¹⁹⁾로 국내 연구들¹⁰⁾보다 낮은 비율이나 자문조정 활동이 활발한 미국은 2.2~9%²⁰⁾²¹⁾의 높은 자문을율을 보이고 있다.

본병원은 연간 입원환자의 수도 타병원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이지만 정신과로의 자문의뢰율도 매우 낮았고 과거 10년전의 자문을율¹³⁾보다 오히려 감소되었는바,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자문조정 정신의학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미약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민²²⁾은 타과 의사들이 정신과적 문제를 하나의

전문적기술을 요하는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자기들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였고 Steinberg²³⁾ 등은 타과 의사들의 정신과 자문 반대 이유를 정신과가 싫다는 점, 환자가 싫어하니까, 정신과적 문제가 없으므로, 의사, 환자 관계가 나빠질까봐 등으로 들고 있다. 이²⁴⁾도 정신과로의 자문의뢰가 낮은 것은 정신과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문결과에 대한 회의 때문이라 하였고 정등²⁵⁾은 주치의가 정신과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77%만이 자문의뢰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중 1/3만 의뢰한다고 하며 그 이유를 병원내에서의 임상 각과간의 수입문제, 정신과 의사의 비판적, 부정적태도, 환자의 저항, 비정신과 의사들의 자문에 대한 저항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본병원도 그동안의 자문경험에 의하면, 아직도 타과 의사들이 정신과로 환자를 의뢰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와같은 점은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신과에서 자문조정 정신의학에 관한 교육내지는 자문활동 정도가 미약했던 결과이기도 하겠다.

Hales와 Fink²⁶⁾는 자문의뢰율은 정신과 자문의들의 활동정도와 비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문조정 활동을 위해서는 정신과 자문의들이 환자의 문제는 물론, 타과의사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뢰환자의 과별분포를 보면, 내과계가 45례(52.94%)로 가장 많아 이는 유와 정¹⁴⁾(30.36%), 서¹⁵⁾(44.2%), 이와 양²⁷⁾(49.8%), 고등²⁸⁾(50.3%)의 결과보다는 높았고 강과 민¹⁰⁾(52.6%)의 결과와는 비슷하였으나 한과 조¹⁷⁾(59.6%), Lipowski³⁾(60%), 이와 박²⁹⁾(62.30%), 민과 조³⁰⁾(65.8%), 이³¹⁾(67.61%), 김³²⁾(87.9%)의 결과보다는 낮았다. 다음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뢰율이 높았던 것은 교통사고 및 장기 입원환자로 인한 것과 연관지을 수 있겠다.

각과별 입원환자중에서 자문의뢰된 비율은 신경외과가 2.14%로 가장 높았고 내과가 1.86% 정형외과가 1.82%를 나타내 유와 정¹⁴⁾의 보고보다는 높았으나 타병원의 자문율¹⁵⁾¹⁶⁾²⁹⁾³⁰⁾³¹⁾³²⁾보다는 훨씬 낮았다.

연령분포는 30대가 18명(21.2%), 20대와 40대가

각각 17명(20.0%)으로 20대에서 40대가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다른 보고와 큰 차이는 없었다. 60대 이상이 18.8%로 조등¹⁶⁾(15.5%), 이와 박²⁹⁾(12.2%)의 결과보다는 높고 Shevitz²⁰⁾(25.5%)의 결과보다는 낮은 비율인데 이는 미국의 경우 노인정신의학의 발달로 노령환자들의 대부분이 기질성뇌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의뢰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문장소에 대한 조사에서 중환자실로부터의 의뢰는 2.4%뿐으로, 이와 박²⁹⁾(19.4%)의 결과보다 현저히 낮았다. Lipowski¹⁾는 특수치료 영역이나 중환자실로부터의 자문의뢰와 자문조정 활동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본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정신과 자문-조정위가 타진료과 입원실이나 특수치료실, 중환자실에 파견되어 타과의사와 함께 환자상태를 평가하여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과, 주로 약물중독이나 자살기도로 들어온 환자들이 내과로 입원되어 증상이 호전되면 곧 일반병실로 옮겨지게 되어 정신과로의 자문의뢰가 지연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의뢰환자의 입원경로중 응급실 경우 입원이 40.0%로 우¹³⁾(53.7%), 이와 박²⁹⁾(49.9%)의 보고에 비해 낮았으나 한과 조¹⁷⁾(37.7%), 강과 민¹⁰⁾(36.3%)의 보고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다. 이런 점을 우¹³⁾나 민과 조³⁰⁾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인턴 및 전공의들에게 정신과적 응급 증상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박²⁹⁾은 입원환자의 제1차적인 주치의는 주로 1년차 전공의들로 이들이 보다 순수한 자세로 환자를 의뢰하는 3월에 의뢰율이 많다는 의견이나 한과 조¹⁷⁾는 초년에 겪는 전공분야에 대한 여유의 결핍과 불안정한 심리적상태로 인해 3월에 의뢰율이 적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본 병원은 한과 조¹⁷⁾의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각 병원마다 다른 요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큰 의의는 없다고 보겠다.

자문시까지의 입원일수가 1달이 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는 장기 입원환자가 많았고 대개는 급한 수술이나 소속과의 일차적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 자문의뢰되고, 특히 신경외과의 경우는 두부손상 후 정신의학적 검사실시에 의해 퇴원 및 장애등급

결정을 위해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의 환자의 이동이 빠른 내과를 비롯한 대부분의과는 입원한지 일주일 이내에 자문을 의뢰해왔다.

Levitan^{등33)}은 정신과적 문제를 파악하기도 전에 행동의 이상을 보이면 즉시 자문을 의뢰해오는 경우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자문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도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치료적 효과를 높이고 입원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선 가능한 신속한 자문을 통해 타과의 사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문이유에서는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33.6%로 가장 많아 우¹³⁾(40.7%)의 결과보다는 낮았으나 유와 정¹⁴⁾(20.86%), 이와 박²⁹⁾(22.4%), 서¹⁵⁾(24.9), 민과 조³⁰⁾(30.3%)의 보고보다는 높은 비율이었다. 다음이 진단적 평가와 치료를 위해 의뢰한 경우가 18.0%로 한과 조¹⁷⁾가 지속적인 정신과치료에 대한 의뢰가 가장 많았다는 보고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자문 의뢰 이유에 대한 빈도별 순서는 이와 양²⁷⁾의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자문의뢰 이유중 자살시도는 8.2%로 민과 조³⁰⁾(19.1%), 이와 박²⁹⁾(20.4%), Wallen³⁵⁾등(30.5%)의 결과보다는 낮았으나 기타 국내의 타 연구결과와는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⁶⁾¹³⁾¹⁵⁾²⁰⁾³⁴⁾. 자살시도에 대한 의뢰율이 낮은 것은 이미 응급실에서 약물중독이나 신체적 손상이 어느정도 해결된 후 기존과로 입원되기 때문에 자살이 정신과적 문제라도 그 심각성이 낮아지게 되어 정신과로 의뢰되기전 퇴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자문진료시 나타난 주증상들은 정신과적 증상이 55.1%로 이 중 불안, 초조등의 정서적문제가 19.2%로 가장 많았고, 신체증상은 44.9%로 이 중 두부 및 중추신경계 증상이 14.3%로 유와 정¹⁴⁾의 보고와는 유사했으나 조¹⁶⁾, 민과 조³⁰⁾의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자문의가 내진 정신과적 진단은 기질성 뇌증후군이 27.1%로 가장 많아 유와 정¹⁴⁾의 연구결과(24.11%)와 비슷하였고 진단보류가 1.2%이었던 것은 타 연구결과¹⁰⁾¹⁶⁾¹⁷⁾²⁹⁾보다 그 비율은 아주 낮았으나 본병원 전체 입원환자중 정신과로 의뢰된 환자의 수가 기타 병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므로 의의가 없다고 보겠다.

자문의의 제안에 대한 반영도에서 정신과적 검사 시행에 대한 권고는 48.2%만이 반영되어서¹⁵⁾(51.4%), 이와 박²⁹⁾(75.6%)의 결과보다 낮았으나 이와 양²⁷⁾(38.4%), 또 Popkin^{등36)}이 대학병원 자문 의뢰 환자의 1/3에서 진단적 조치가 권유되었다는 결과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주로 뇌파검사와 심리검사가 권유되었으나 자문의뢰된 환자중 기질성 정신장애가 많았음을 고려할때 뇌전산화 단층촬영등의 최신 진단기법도 권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약물제안에 대한 반영도는 가장 높은 반영율(77.9%)을 보였고 특히 외과계(85.7%)가 내과계(71.4%)보다 훨씬 반영율이 높았다($p < 0.1$). 이런 결과는 타연구보고와¹⁷⁾²²⁾²⁹⁾³⁷⁾ 비교할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외과계에서 정신과적 검사나 투약제안에 대한 반영율이 높았다는 점은 비록 의뢰된 환자수는 적다해도 본병원에서는 외과계 의사들이 정신과적 문제를 정신과 의사에게 맡기겠다는 경향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사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과 진단에 대한 반영도는 70.2%에서 정신과 자문의가 내린 진단을 반영하여 한과 조¹⁷⁾40%), 이와 박²⁹⁾(40.8%), Popkin³⁶⁾(52%)의 결과보다는 높은 반영을 나타냈으나 민²²⁾(89%)의 결과보다는 낮았다.

정신과로의 전과 권유에 대한 반영도는 50.0%로 우¹³⁾(27.8%)의 결과보다는 높았고 이와 박²⁹⁾(56.0%), 민²²⁾(63.4%)의 결과보다는 낮았다. 한편 외래치료에 대한 반영도는 27.9%로 우¹³⁾(5.6%)의 결과보다는 현저히 높았으나 이와 박²⁹⁾(55.8%), 한과 조¹⁷⁾(60%)의 결과보다는 아주 낮았다.

정신과로의 전과나 외래추적 치료에 대한 반영도가 낮았던 점은 타과 의사들이 진단 및 정신과적 치료에 위주되기보다는 투약에 의한 증상조절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정신과 자문이 단 한번의 면담으로만 끝나게 되는 실정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저자가 본병원에서 자문의뢰를 담당하고 본조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점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우¹³⁾가 1978년 본병원 입원환자의 정신과 자문의뢰를 보고한 결과와 비교해 볼때, 10년후인 1988년도 정신과 자문의뢰가 오히려 감소되었고 국내 타병원이나 외국의 결과보다 아주 낮은 자문을

은 나타낸 점은 지금까지 정신과 자문활동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결과이다.

이와같은 점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타과의사들의 정신과 자문에 대한 인식부족, 또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정신과의사를 포함하여 의료진이 정신과 자문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우¹³⁾가 1978년 정신과 자문의뢰를 보고할 당시엔 주로 교수진이 정신과 자문을 직접 담당하였으나 그후 특진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수진은 제한된 환자만을 의뢰받았고 대부분은 전공의들이 인턴이 미리 면접한 내용을 가지고 정신과 의뢰환자들을 면담하게 되어 일관성이 부족되어 정신과 자문에 대한 관심도 및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도 생각되므로 앞으로 자문조정정신의학 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Hales와 Fink²⁶⁾의 주장대로 35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조정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하면서 점차 종합병원은 3차진료기관으로 전환되고 특수클리닉이 중요시되는 추세에 따라 본병원에서도 정신과를 주축으로 한 자문조정에 대한 활성화가 있어야겠다. 또한 정신과의사와 타전문 의사와의 친근한 관계가 있어야 하겠고, 생물의학적 습성에만 국한되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보다 많은 연구 및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198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12개월 동안 이화여대 부속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 12,352명중 신경정신과 입원환자 207명을 제외한 12,145명 가운데 정신과에 자문의뢰된 환자 85명을 대상으로 일반 인구학적 자료와 신경정신과 자문상황 및 그 반영도를 조사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자문율은 0.70%이었고, 내과로부터의 의뢰가 52.94%로 가장 많았으며各科 입원환자중 자문율은 신경외과가 2.14%로 가장 높았고 내과계의 자문율(0.85%)이 외과계(0.53%)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P<0.001$).

2)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0대의 자문율이 가장 많았고 60대이상은 18.8%이었으나 10대이하는 1.2%로 가장 적었다.

3) 중환자실로부터의 의뢰는 2.4%뿐이었고 응급실경유 입원은 40.0%이었다. 1월에 자문의뢰가 가장 많았고(17.7%) 자문시까지의 입원일수는 일주일 이내가 가장 많았다.

4) 정신과 자문의유는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33.6%, 다음이 진단적 평가와 치료를 위해 의뢰한 경우가 18.0%이었다. 자문당시의 증상은 정신과적 증상(55.1%)이 신체증상(44.9%)보다 많았고 정신과적 증상에는 정서적 문제가 19.2%, 신체증상에는 두부 및 중추신경계 증상이 14.3%로 가장 많았다.

6) 자문의가 내린 정신과적 진단은 기질성 정신장애가 2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신체형장애가 22.3%, 정동장애가 15.3%의 순이었다.

7) 자문의의 제안에 대한 반영도에서는 투약제안에 대한 반영(77.9%)이 가장 높았고 특히 외과계(85.7%)가 내과계(71.4%)보다 높은 반영을 보였다($P<0.1$). 다음이 정신과 진단에 대한 반영이 70.2%, 정신과로의 전과에 대한 반영이 50.0%, 정신과적 검사에 대한 반영이 48.2%이었고 외래 추적치료 제안에 대한 반영은 27.9%로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타 연구결과와 비교 검토하였고 종합병원에서의 자문조정 정신의학에 대한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References

- 1) Lipowski ZJ: *Current trends in consultation-liaison psychiatry. Can J Psychiat* 1983; 28: 329-338
- 2) McKegney: *Consultation-liaison psychiatry. In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4th ed. Edited by Kaplan HI & Sadock BJ Baltimore/London Williams & Wilkins* 1985: 1219-1223
- 3) Lipowski ZJ: *Review of consultation psychiatry and psychosomatic medicine: II. clinical aspects. Psychosom Med* 1967; 29: 201-224
- 4) Koran LM, Natta JV, Stephens JR, Pascualy R

- : *Patients reaction to psychiatric consultation. JAMA 1979* : 241 : 1603-1605
- 5) Houp JL, Orleans CS, George LK, Brodie KH : *The role of psychiatric and behavioral factors in the practice of medicine. Am J Psychiat 1980* : 137 : 37-47
 - 6) Bustamente JP, Ford CV : *Characteristics of general hospital patients referred for psychiatric consultation. J Clin Psychiat 1981* : 42 : 338-341
 - 7) Anstee BH : *The pattern of psychiatric referrals in a general hospital. Brit J Psychiat 1972* : 120 : 631-634
 - 8) Moffic HS, Paykel ES : *Depression in medical inpatients. Brit J Psychiat 1975* : 126 : 346-353
 - 9) 민병근 : 종합병원 외래환자의 정신과 진찰 의뢰에 대한 고찰. 현대의학 1966 : 4 : 201-205
 - 10) 강대엽 · 민성길 : 한 종합병원에서의 입원 및 외래환자에 있어 정신과 자문에 대한 비교 연구. 신경정신의학 1986 : 25 : 467-475
 - 11) 조두영 : 종합병원 정신과 자문경험—그 실기요령과 이에 관한 시비—신경정신의학 1983 : 22 (1) : 133-144
 - 12) Brody EB : *New horizons for liaison psychiatry : Biomedic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Am J Psychiat 1989* : 146(3) : 293-295
 - 13) 우행원 : 종합병원에서의 정신과 의뢰. 논총 : 1978 : 21 : 133-140
 - 14) 유상은 · 정영철 : 전북대학교 병원에서의 정신과 자문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궤신의학 1989 : 32 (7) : 25-32
 - 15) 서영대 : 입원환자의 정신과 자문에 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983 : 22 : 649-654
 - 16) 조용찬 · 이성필 · 유태열 : 강남성모병원에서의 정신과 자문경험. 신경정신의학 1984 : 23 : 199-206
 - 17) 한진희 · 조두영 : 종합병원 정신과 자문의 현황과 전귀 : 신경정신의학 1984 : 23 : 8-21
 - 18) Zuo C, Yang L, Chu CC : *Pattern of psychiatric consultation in a chinese general hospital. Am J Psychiat 1985* : 142(9) : 1092-1094
 - 19) Taylor G, Doody K : *Psychiatric consultation in a canadian general hospital. Can J Psychiat 1979* : 24 : 717-723
 - 20) Sheivitz SA, Silberfarb PM, Lipowski ZJ : *Psychiatric consultation in a general hospital—A report on 1,000 referrals. Disease of Nervous System 1976* : 37 : 295-300
 - 21) Fauman MA : *Psychiatric components of medical and surgical practice II : referral and treatment of psychiatric disorders. Am J Psychiatry 1983* : 146 (6) : 760-763
 - 22) 민성길 : 정신과 자문에 있어 자문 의견의 반영도. 신경정신의학 1982 : 21 : 650-656
 - 23) Steinberg H, Torem M, Saravay SM : *An analysis of physician resistance to psychiatric consultation. Arch Gen Psychiat 1980* : 37 : 1007-1012
 - 24) 이 철 : 정신과 자문조정 활동에 대한 타과 의사들의 견해. 신경정신의학 1977 : 16 : 402-414
 - 25) 정환중 · 송태형 · 변원탄 : 정신과 자문에 대한 비정신과 의사의 견해 및 태도 조사. 신경정신의학 1984 : 23 : 96-104
 - 26) Hales RE, Fink PJ : *A modest proposal for consultation-liaison psychiatry in the 1980s. Am J Psychiat 1982* : 139(8) : 1015-1021
 - 27) 이효경 · 양병환 : 정신과 자문현황—한양대학교 병원의 경우—정신건강연구 제7집 1988 : 103-112
 - 28) 고경봉 · 민성혜 · 민성길 : 10년간 정신과 자문의 변화 양상. 신경정신의학 1988 : 27(1) : 23-30
 - 29) 이정태 · 박홍수 :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정신과 자문에 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989 : 28(3) : 491-499
 - 30) 민성길 · 조강주 : 정신과 의뢰에 대한 임상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977 : 16 : 402-414
 - 31) 이형영 : 정신과 의뢰에 대한 환자의 반응 : 전남 의대잡지 1978 : 15 : 255
 - 32) 김현우 : 일반 종합병원에서의 정신과 자문. 정신의학보 1980 : 4 : 82-85
 - 33) Levitan SJ, Kornfeld DS : *Clinical and cost benefits of liaison psychiatry. Am J Psychiat 1981* :

138 : 790-793

- 34) Lipowski ZJ, Wolston EJ : *Liaison psychiatry : Referral patterns and their stability over time. Am J Psychiat* 1981 : 138-1068
- 35) Wallen J, Pincus HA, Goldman HH, Marcus SE : *Psychiatric consultation in short-term general hospitals. Arch Gen Psychiat* 1987 : 44 : 163-168
- 36) Popkin MK, Mackenzie TB, Callies AL, Hall RCW : *Yield of psychiatric consultants recommendations for diagnostic action. Arch Gen Psychiat* 1982 : 39 : 834-845
- 37) Popkin MK, Mackenzie TB, Callies AL : *Consultation-liaison outcome evaluation system. Arch Gen Psychiat* 1983 : 40 : 215-219